

윤성훈 선임연구위원

요약

-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코로나19 충격이 발생하였는데, 국가별 누적 확진자, 경제 성장률 등에 있어서 다양한 모습이 나타남
- 본고는 이처럼 누적 확진자, 경제 성장률 등이 국가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이는 원인을 정치적, 경제적 측면에서 간략히 검토하고자 함
 - G20 국가를 포함하여 IMF에서 분류한 기타 선진국 및 주요 개도국 중 50개국을 대상으로 함
-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규모에 있어서 국가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만 국가 체제와의 연관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임
 - 권위주의 국가의 경우 누적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한 사례가 없으나,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이들 국가 못지않은 방역 성과를 보인 사례가 많음
 - 이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도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보여줌
- 누적 확진자와 경제 성장률 간에는 비선형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, 일견 국가 간 경제 성장률 차이는 수출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
 - 코로나19 충격에서 수출이 상대적으로 덜 타격을 입은 국가의 경우 경제 성장률이 작게 하락함
-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민주주의에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됨
 - 정부의 비대화, 의료·사회보장·교육 접근성 및 디지털 격차 심화, 인종주의 확산, 소득 및 자산 불균형 확대 등이 그 자체로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,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후퇴되고 있음이 지적됨
- 코로나19 충격으로 어려운 상황이나 R&D 투자 확대, 신성장산업 지원 등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위촉되어서는 안 될 것임



1. 서론

○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코로나19 충격이 발생하였는데, 국가별로 누적 확진자, 경제 성장률 등에 있어서 다양한 모습이 나타남(〈표 1〉 참조)

- G20 국가의 경우 2020년 12월 말 기준 인구 1만 명당 누적 확진자¹⁾는 중국, 호주, 우리나라, 일본이 각각 0.6명, 11.0명, 11.7명, 18.7명으로 소규모인데 반해, 미국, 영국, 프랑스, 브라질은 각각 612.9명, 361.7명, 400.1명, 360.4명으로 상대적으로 큰 규모임
- IMF는 2020년 G20 국가 중 중국과 터키를 제외하고 모든 국가가 역성장하며, 특히 유럽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 가장 낮을 것으로 예측함²⁾
 - 2020년 경제 성장률의 경우 중국과 터키가 각각 2.3%, 1.2%인데 반해, 영국, 프랑스, 스페인, 이태리는 각각 -10.0%, -9.0%, -11.1%, -9.2%로 매우 심각한 경제 위축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함

〈표 1〉 G20 누적 확진자 및 경제 성장률

(단위: 명, %)

구분	누적 확진자	경제 성장률	구분	누적 확진자	경제 성장률	구분	누적 확진자	경제 성장률
호주	11.0	-2.9	스페인	413.2	-11.1	인도네시아	27.6	-1.9
캐나다	177.0	-5.5	영국	361.7	-10.0	멕시코	109.7	-8.5
프랑스	400.1	-9.0	미국	612.9	-3.4	러시아	215.2	-3.6
독일	208.1	-5.4	아르헨티나	355.6	-10.4	사우디	104.1	-3.9
이태리	345.6	-9.2	브라질	360.4	-4.5	남아공	174.1	-7.5
일본	18.7	-5.1	중국	0.6	2.3	터키	260.7	1.2
한국	11.7	-1.1	인도	74.4	-8.0	-	-	-

주: 누적 확진자(인구 1만 명당)는 2020년 12월말 기준이고, 경제 성장률은 IMF가 2021년 1월에 예측한 2020년 성장률임
자료: WHO; IMF

○ 본고는 이처럼 누적 확진자, 경제 성장률 등이 국가별로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 원인을 정치적, 경제적 측면에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함

- 권위주의, 민주주의 등 국가 체제가 방역 효과(누적 확진자)와 연관성이 있는지, 경제 성장률이라는 측면에서 코로나 19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국가의 경제적 특징은 무엇인지 찾아보고자 함
- G20 국가를 포함하여 IMF에서 분류한 기타 선진국 및 주요 개도국 중 50개국을 대상으로 검토함

1) WHO Coronavirus Disease(COVID-19)

2) IMF World Economic Outlook(2021. 1)



2. 코로나19 충격과 민주주의

- 중국과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의 경우 인구 1만 명당 누적 확진자가 적게 발생함에 따라 국가 통제의 권위주의 체제가 민주주의 체제에 비해 방역에 있어서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개선되기도 함
 - 2020년 12월 말 기준 인구 1만 명당 누적 확진자는 베트남 0.1명, 중국 0.6명, 태국 1.0명, 인도네시아 27.6명 등으로 200~400명대의 유럽과 600명대의 미국에 비해 확진자가 적게 발생함
 - 2020년 Economist³⁾가 발표한 167개국의 민주주의 지수에 따르면 민주주의 순위는 인도네시아 64위, 태국 73위, 베트남 137위, 중국 151위임
 - G20 국가 중 인구 1만 명당 누적 확진자가 가장 많은 미국(612.9명), 스페인(413.2명), 프랑스(400.1명), 영국(361.7명)의 경우 각각 민주주의 순위가 25위, 22위, 24위, 16위임

- 특히 2020년 상반기 중국이 코로나19 확산을 조기에 진정시키고 자국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자 이에 위협을 느낀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민주주의 국가도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처⁴⁾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 사례⁵⁾를 주목함
 - 미국, 유럽 등의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한 것은 코로나19 대응의 잘못⁶⁾일 뿐 민주주의 모델의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함
 - 개방성, 투명성, 교육, 시민 참여 등에 바탕을 둔 우리나라 방역 모델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도 함

- 국가 체제와 방역효과 간의 연관성을 찾아보기 위해 민주주의 지수와 인구 1만 명당 누적 확진자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, 명확한 선형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음
 - 민주주의 정도가 낮은 국가에서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, 민주주의 정도가 높은 국가에서도 확진자가 적은 국가가 상당수 존재함(그림 1) 참조
 - 민주주의 정도가 낮은 국가의 경우 경제 성장률 충격이 크지 않았으나, 민주주의가 정도가 높은 국가에서도 경제 성장률 충격이 적은 사례가 상당수 존재함(그림 2) 참조
 - 이는 방역이 매우 어려운 과제이나 민주주의 국가도 인권 등 사적 영역 위축을 최소화하면서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임
 - 지역 봉쇄, 도시 봉쇄, 사생활 감시, 인권 침해 등과 같은 방역 조치가 어려운 민주주의 국가에서 방역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이나 상당수 국가는 민주적인 절차와 대응을 통해 권위주의 국가와 비견될 정도로 방역 성과를 보였음
 - 민주주의 국가 중 대만(11위) 0.4명, 뉴질랜드(4위) 4.3명, 호주(9위) 11.0명, 한국(23위) 11.7명, 일본(21위) 18.7명 등이 방역 성과가 우수함

3) 위키백과 '민주주의 지수'를 참조함

4) <https://www.hankyung.com/international/article/202003125203Y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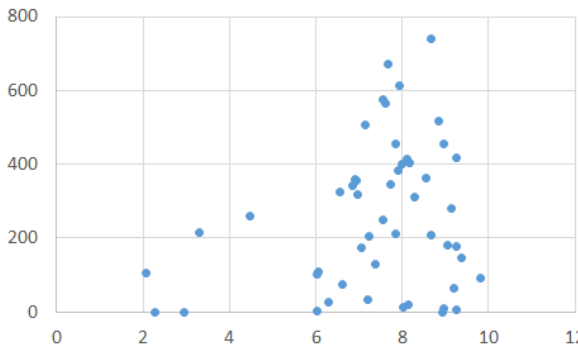
5) 우리나라 민주주의 순위는 23위임

6) 전문가 의견을 수용하기보다는 마스크 미착용 등 포퓰리즘적 대응이 문제로 지적됨

- 민주주의 국가 간 확진자 격차가 크게 발생한 것은 정부의 대응(정책의 일관성vs포퓰리즘)과 시민의식(마스크 착용) 등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추측됨

〈그림 1〉 민주주의의 지수와 누적 확진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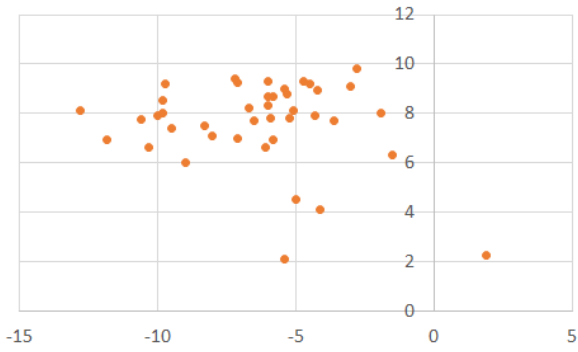
(단위: 명)



주: 세로축은 인구 1만 명당 누적 확진자(명), 가로축은 민주주의 지수이며, 동 지수가 높을수록 민주주의 정도도 높음
자료: WHO, "Economist"

〈그림 2〉 민주주의의 지수와 경제 성장률

(단위: %p)



주: 세로축은 민주주의 지수, 가로축은 2020년과 2019년의 경제 성장률 차이(%p)임
자료: IMF, "Economist"



3 코로나19 충격과 경제성장

○ 인구 1만 명당 누적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국가일수록 방역조치 강화 등에 따라 경제활동 위축으로 경제 성장률이 더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, 예상과는 다르게 누적 확진자와 경제 성장률 사이에 선형 관계가 명확히 보이지 않음(〈표 2〉 및 〈그림 3〉 참조)

- 인구 1만 명당 누적 확진자가 100명 미만인 국가의 평균 경제 성장률(2020년) 및 경제 성장률 변화(2020년-2019년)는 각각 -3.9%, -7.1%p로 가장 양호함
 - 한편, G20 국가 중 인구 1만명 당 누적 확진자가 가장 적은 중국(0.6명), 호주(11.0명), 우리나라(11.7명), 일본(18.7명)의 경우에도 경제 성장률이 각각 2.3%, -2.6%, -1.1%, -5.1%로 국가간에 큰 차이를 보임
- 그러나 인구 1만명 당 누적 확진자가 500명 이상 국가의 경우 평균적으로 100~199명 및 300~499명 국가보다 경제 성장률 측면에서 충격이 오히려 적은 것으로 나타남

〈표 2〉 누적 확진자와 경제 성장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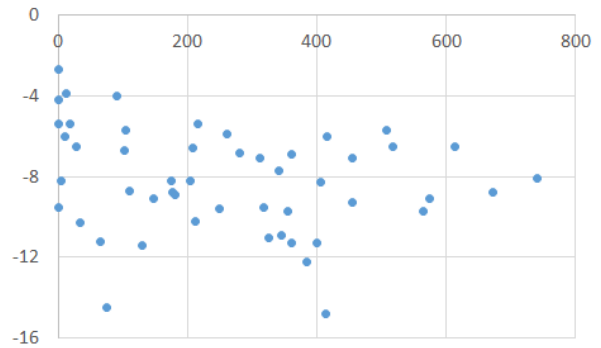
(단위: 명, %, %p)

누적 확진자	경제 성장률 (2020년)	경제 성장률 변화 (2020~2019년)
0~99	-3.9	-7.1
100~199	-6.9	-8.4
200~299	-5.3	-7.5
300~399	-7.9	-9.6
400~499	-7.6	-9.5
500~	-5.5	-7.8

주: 확진자는 인구 1만 명당임. 경제 성장률 및 경제 성장률 변화는 확진자 규모별 국가의 단순 평균임
자료: WHO; IMF

〈그림 3〉 누적 확진자와 경제 성장률 변화

(단위: 명, %p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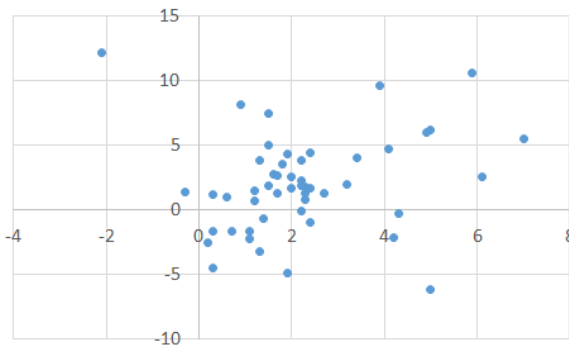


주: 세로축은 2020년과 2019년의 경제 성장률 변화(%p), 가로축은 인구 1만 명당 확진자(명)임
자료: WHO; IMF

- 국가별로 경제 성장률에 대한 코로나19 충격이 상이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정교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나, 본고에서는 수출을 검토함

〈그림 4〉 2019년 경제 성장률과 수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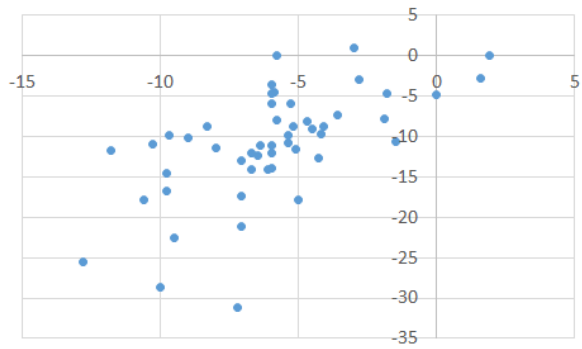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

주: 상관계수 0.17, 가로축은 경제 성장률(%), 세로축은 수출 증가율(%)
자료: IMF

〈그림 5〉 2020년 경제 성장률과 수출

(단위: %)



주: 상관계수 0.61, 가로축은 경제 성장률(%), 세로축은 수출 증가율(%)
자료: IMF

- 경제 성장률과 수출(7) 증가율 간의 관계를 보면, 2019년과는 다르게 2020년에는 선형관계가 매우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음
 - 경제 성장률과 수출 증가율 간의 관계는 2019년의 경우 비록 양(+)이나 상관계수가 0.17로 매우 낮은 반면, 2020년의 경우 0.61로 매우 높음(〈그림 4〉, 〈그림 5〉 참조)

7) IMF에서 발표하는 재화와 서비스 수출 물량임

- 인구 1만 명당 누적 확진자가 적게 발생한 국가들 간, 그리고 많이 발생한 국가들 간에 경제 성장률 차이는 수출 증가율 차이와 거의 일치함(〈표 3〉 참조)

〈표 3〉 2020년 누적 확진자, 경제 성장률 및 수출 증가율

(단위: 명, %)

구분	국가	누적 확진자	경제 성장률	수출 증가율	구분	국가	누적 확진자	경제 성장률	수출 증가율
소규모 발생국	대만	0.4	0.0	-4.9	대규모 발생국	캐나다	177.0	-5.5	-13.0
	중국	0.6	2.3	0.0		독일	208.1	-5.4	-12.0
	뉴질랜드	4.1	-6.0	-13.9		영국	361.7	-10.0	-14.6
	호주	11.0	-2.9	-9.7		스페인	413.2	-11.1	-25.5
	한국	11.7	-1.1	-7.8		스웨덴	416.2	-4.7	-8.1
	일본	18.7	-5.1	-11.6		미국	612.9	-3.4	-12.6

주: 누적 확진자는 인구 1만 명당임. 대만과 뉴질랜드, 스웨덴 경제 성장률은 2020년 10월 예측치이고 나머지 국가는 2021년 1월 예측치임. 수출 증가율은 2020년 10월 예측치임

자료: WHO; IMF

- 코로나19 충격에도 수출이 상대적으로 덜 타격을 입은 국가의 경우 경제 성장률이 작게 하락함
 - 코로나19 충격이 국가별 누적 확진자와 관계없이 소비 및 투자 심리를 크게 악화시켰기 때문에, 대외 경쟁력에 의해 좌우되는 수출의 경우 경제 성장에 대한 영향력이 커진 것으로 해석됨



4. 시사점

- 본고는 국가 간 누적 확진자와 경제 성장률 차이의 이유를 정치적, 경제적 측면에서 간략히 검토함
- 코로나 19 누적 확진자 규모에 있어서 국가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만 국가 체제와의 연관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임
 - 권위주의 국가의 경우 누적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한 사례가 없으나,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이들 국가 못지않은 방역 성과를 보인 사례가 상당수 발견됨
 - 지역 봉쇄, 도시 봉쇄, 사생활 개입 및 감시, 인권 침해 등과 같은 방역 조치가 어려운 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방역이 매우 어려운 과제이나 민주주의 국가도 민주적인 절차와 대응에 의해서 방역에 성공적일 수 있음을 보여줌
 - 국가별 누적 확진자 차이는 정부의 대응과 시민의식 차이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됨
- 그러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민주주의에 새로운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

에 대한 주의가 요구됨

- 정부의 대응 과정에서 일부 정치인들이 코로나19 위기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으며, 코로나19로 인해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음이 지적됨(Global Leadership Coalition 2020)⁸⁾
 - Brookings 연구소⁹⁾는 민주주의의 경우 그 동안 내부의 포퓰리즘과 민족(국가)주의 등장, 그리고 외부 독재 체제로부터의 위협에 시달렸는데, 코로나19로 인해 국제화, 민주적 의사결정, 코로나19와 같은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해결 능력 등에 대한 의구심이라는 새로운 위협에 마주치게 되었다고 언급함
 - 정부의 비대화, 의료·사회보장·교육 접근성 및 디지털 격차 심화, 인종주의 확산, 소득 및 자산 불균형 확대 등이 그 자체로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고 있음
- 누적 확진자와 경제 성장률 간에는 비선형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, 일견 국가 간 경제 성장률 차이는 수출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
- 코로나19 충격에도 수출이 상대적으로 덜 타격을 입은 국가의 경우 경제 성장률이 작게 하락함
- 코로나19 충격으로 어려운 상황이나 R&D 투자 확대, 신성장산업 지원 등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위촉되어서는 안 될 것임

8) Global Leadership Coalition(2020. 12. 19), "Covid-19 Brief: Impact on Democracy around the World"

9) Belin, C. and De Manio, G(2020), "Democracy after Coronavirus: Five Challenges for the 2020s", Brookings